# “조속 진화 기원·복구 지원에 최선”…불교계 한목소리

**3월 26일 진우 스님 담화문 발표**
**중앙종회, 임시회서 호소문 채택**
**천태종·태고종도 “물심양면 지원”**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3월 21일 의성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며칠째 이어지며 고운사를 비롯한 여러 사찰이 전소된 가운데 불교계가 조속한 진화와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에 힘 모을 것을 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월 26일 발표한 전국 산불 확산에 대한 조계종 담화문에서 “영남 북부 지역을 휩쓸고 있는 화마로 우리 종단의 16교구 본사이자 천년고찰인 고운사를 비롯해 운람사 등 여러 사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산불 피해 사찰들이 다시금 법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우 스님은 “국가유산청 등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동이 가능한 성보들을 선제적으로 이운해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이고 있다. 문화유산 보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생명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며 “정부 당국에서는 인력의 구조와 진화대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고, 재난 지역의 사찰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종단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재난에 대한 문화유산 관리시스템을 더욱 세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길 기원하며, 산불 진화 이후 유관기관과 함께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조계종 중앙종회도 제233회 임시회에서 전국적 산불로 인한 국가 재난사태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채택했다. 중앙종회 의원들은 호소문에서 먼저 산불 피해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치거나 순직한 소방관과 희생자들의 빠른 치유와 극락왕생을 발원했다.


안동 봉정사를 찾은 진우 스님이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화재 방지 대책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제공=조계종 기획실

천년고찰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의 주요 전각들과 운람사를 비롯한 전통사찰과 문화유산이 소실되는 참담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한 이들은 “우리나라 소중한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문화유산이 더 이상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산불 피해 수습과 복구에 함께하고자 한다”면서 “중앙종회는 산불 피해 복구와 원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불교계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3월 27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산불 재난의 조속한 종식을 기원했다. 덕수 스님은 “이번 산불로 수많은 국민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천년고찰을 비롯한 소중한 문화유산이 소실됐다. 무엇보다 화마를 피하지 못한 국민과 산불 진압에 나섰던 20여 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천태종은 300만 종도와 함께 이번 산불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덕수 스님은 이어 “혼란한 정국 속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로 전 국민이 불안한 마음에 휩싸여 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면서 “천태종도 정부의 재난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피해 지역의 복구와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 사찰의 신도들과 함께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도 3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산불의 피해 회복에 마음 모을 것을 당부했다. 상진 스님은 “재난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고 돕는 따뜻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태고종은 이번 재난이 하루빨리 수습되고 피해를 입은 모든 분이 다시 평온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이재민들의 안정된 일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태고종은 산불 수습이 이뤄지는 대로 피해지역에 긴급구호품과 위문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 “화마에 성보유산 지켜라”…발빠른 이운, 피해 막았다

**사찰 · 국가유산청, 소산 작업**
**봉정사, 부석사 등 불상 불화**
**박물관, 지역 기관에 이운해**
**석불, 석탑엔 방염포 작업도**

화마에 불교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불교계와 문화유산 당국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안동 봉정사 영주 부석사 등 지역 사찰과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산불이 확대된 3월 25일부터 중요 동산문화유산들을 안전지대로 소산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3월 27일 현재 사찰 및 종가 소장 문화유산 23건 1566점에 대한 소산 작업을 완료했다. 또한 이운이 어려운 석탑과 석불 등에는 산불로부터 보호하는 방염포 포장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안동 봉정사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목조관음보살좌상, 영산회 괘불도, 아미타설법도는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로 급히 이운됐다. 시도유형문화유산 봉정사 소장유물 책판 12종 60점, 탱화 2점, 고승진영 9점은 예천박물관으로 보내졌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청은 무진동 차량 2대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성보유산들을 옮겼다. 다만, 무게가 많이 나가는 대웅전 벽화나 일부 보물은 봉정사 유물전시관인 성보관에 보관 중이다. 봉정사의 성보관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조성돼 약 12시간 정도 화염을 견딜 수 있다는 것이 국가유산청의 설명이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들이 봉정사 불교문화유산들을 안전지대로 이운하기 위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가유산청

산불 북상으로 영주 부석사도 3월 25일부터 방화선을 구축하고 성보유산들을 이운하는 등 본격적인 화재 방재 작업에 들어갔다. 보물 영주 부석사 고려목판 3종 634점과 영주 부석사 오불회 괘불탱은 영주 소수박물관으로, 시도유형문화유산인 영주 부석사 조사당 목조의상대사좌상은 된장체험단지로 각각 이운됐다.

보물 경북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은 갈안초등학교로, 복장유물(발원문 1점, 묵서편 1점, 저고리 1점, 후령통 일관 5점)은 안동시립박물관에서 이운·보관됐다. 보물 영덕 장륙사 건칠관음보살좌상·영산회상도·지장시왕도는 영해면사무소로 이운됐다.

시도유형문화유산 안동 봉황사 삼세불화·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목조삼전패는 세계유교문화박물관으로 옮겨졌다.

의성 옥련사·지장사·대곡사·운용사, 안동 용담사·봉황사·선찰사, 청송 대전사·대원사·보리수 선원 등도 주요 성보들을 안전지대로 이운했다.

보물 연수전 등 전각 21동이 소실된 의성 고운사는 화마가 덮치기 전인 3월 24일 이동이 가능한 불상, 불화, 고서 등 비지정 유형문화유산을 영주 부석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했다. 소장 중이었던 보물 석조여래좌상도 3월 25일 오후 3시 30분 경 안동청소년문화센터로 옮겨 피해를 막았다.

사찰이 전소된 운람사와 전각 5동이 소실된 만장도 주요 성보들을 인근 박물관으로 이운해 화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했다.

울주군 산불이 확산되며 부산 기장군 소재한 사찰들도 발빠르게 대응했다. 기장 장안사는 급히 경내에 있는 문화유산을 옮기는 작업을 진행했다.

신중일 · 하성미 기자

#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자비의 손길을”

**본지 · 아름다운동행, 긴급모금**
**산불 재난 · 문화유산 복구 지원**

3월 21일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등 영남 북부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삽시간 번지면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5000여 명의 이재민들은 집을 떠나 체육관, 학교 강당 등으로 긴급 대피해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본적인 생필품과 식료품조차 불길에 휩쓸려 버려 입을 옷도, 먹을 음식도, 잠잘 곳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과 본지는 산불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모금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모금은 4월 30일까지 이어지며 모금액은 산불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들과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 복구에 쓰여질 예정이다.

홈페이지(dreaminus.org) 참조. 농협 301-0137-6667-11(예금주:아름다운동행) 02-737-9595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피해복구와 이재민을 지원하는 한편 긴급 모금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기부는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일반 후원 및 정기 후원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예금주: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 02-6334-2206

국내 유일 재난사회복지전문기관 **더프라미스**는 3월 23일부터 경남 산청군 및 경북 의성군 일대 산불 피해 현장에 긴급구호팀을 파견해 아동·청소년 및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긴급 모금도 진행 중이다. 모연금은 긴급 물품 지원과 향후 아동들의 학교 복귀와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에 쓰인다.

신한은행 140-011-038160(예금주: 사단법인 더프라미스) 02-735-3119

특히 스님들의 경우 불길을 피하느라 여분의 승복을 챙기지 못한 채 긴급대피해 승복이 절실한 상태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